KIA, 투·타 부진속 공동 4위

프로야구 시범경기 결과 김진우·한기주 제역할 못해

1일 전국에 발생한 황사로 인해 모든 경기가 취소되면서 2007 시범경기가 종료됐다.

8개구단이 10~11경기씩 치른 이번 시범경기에선 지난해 하위권으로 처졌던 SK와 롯데가 1, 2위를 차지했고, 올 시즌 'V10'을 노리는 KIA는 4위로 무난한 성적을 보였다.

객관적인 전력만큼은 '충분한 4강 후보'라는 KIA는 좌완 전병두가 3경기 11이닝동안 무자책점을 기록해 벤치를 들뜨게 만들었지만 에이스 김진우와 마무리 한기주가 부진한 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타선에선 지난해 주력 선수들의 약한 타격감이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김진우는 2경기에 선발로 나서 5이닝동안 9피안타, 7사사구, 9자책점을 기록하며 방어율 16.20으로 2패를 떠안았다.

한기주도 5경기 5.2이닝동안 9피안타, 5탈삼진, 4자책점, 방어율 6.35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타선에선 지난해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자인 이용규가 34타수 6안타, 타율 0.176으로 헤맸고, '3할타자' 장성호는 33타수 7안타 타율 0.212, '주장' 이종범은 27타수 5안타 타율 0.185, 홍세완은 33타수 5안타 타율 0.152 등 중심 타자들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해 SK에서 이적한 조경환이 23타수 7안타, 타율 0.304로 고감도 타격감을 유지한 게 그나마 위안이 됐다.

반면 SK는 지난 해 11월 김성근 감독이 취임하자 마자 5개월이 넘는 강행군을 벌인 효과로 8개 구단 중 가장 좋은 페이스를 보였다. 특히 SK는 팀 방어율 1.50으로 철벽 마운드를 구성해 관심을 모았다.

롯데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타격 3관왕 이대호를 앞세운 롯데는 팀타율 (0.256) 1위, 팀 득점(46) 2위, 팀 타점(44) 1위를 차지하며 막강 공격력을 자랑했다.

국가대표 사령탑 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두산은 에이스 박명환이 이탈했지만 거포 김동주와 홍성흔이 부상을 털고 복귀해 공격력이 강화됐고, 한화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이영우와 시범경기에서 장타력을 과시한 2년생 김태완 등의 합류로 최강의 '다이나마이트 타선'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됐다.

◇프로야구 시범경기 최종순위

순위	구단	승-패-무	승률	승차
①	SK	8-2-0	0.800	-
②	롯데	8-3-0	0.727	0.5
③	두산	5-4-1	0.556	2.5
④	KIA	5-5-1	0.500	3.0
	한화	5-5-1	0.500	3.0
⑥	삼성	4-7-0	0.364	4.5
	현대	4-7-0	0.364	4.5
⑧	LG	2-8-1	0.200	6.0

한국시리즈 2연패를 달성한 삼성은 시범경기에서 특별한 전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페넌트레이스에서는 권오준-오승환의 '철벽 계투'가 건재한데다 거포 심정수가 돌아와 올해도 우승후보로 꼽히고 있다.

김재박 감독을 영입해 지난 겨울 대대적인 전력보강에 나섰던 LG는 이렇다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시범경기를 꼴찌로 마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태환 "AG 후 한달 쉰게 패인"

멜버른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자유형 1,500m 결승 진출 실패

"도하아시안게임 끝나고 한 달 정도를 쉰 게 경기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난달 31일 오전(한국시간)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결승에서 9위(15분03초62)를 기록하며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한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은 "훈련이 짧았기 때문에 지구력이 달려서 불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예선 탈락의 원인에 대해 "아시안게임 끝나고 한 달 동안 훈련을 하지 않은 것이 경기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예선 탈락의 아픔이 있었지만 박태환은 오히려 담담했다. 자신의 결승 진출 실패를 확인한 뒤 한국 대표팀의 여자 400m 혼계영 경기를 응원했을 정도.

박태환은 "두 달 정도로 훈련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정도 기록이 나온 것에 만족한다"며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그랜트 해켓이 함께 뛰어 그나마 레이스를 잘 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신 수영복 대신 반신 수영복을 입고 뛴 박태환은 "훈련 기간이 짧아 전신 수영복에 적응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가 끝나면 전신 수영복을 입겠다"고 밝혔다.

이미 기록 단축 효과가 입증된 전신 수영복은 적응하는데만 3개월 가량 걸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흥국생명 첫 통합우승 2연패

힐스테이트 프로배구 여자부

'미녀 군단' 흥국생명 핑크 스파이더스가 프로 출범 후 첫 통합우승 2연패 위업을 이뤘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31일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힐스테이트 2006~2007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3선승제) 4차전에서 '좌우 쌍포' 김연경(33점)과 황연주(24점)의 60점을 합작하는 맹활약에 힘입어 현대건설에 3-2(16-25 27-25 22-25 28-26 15-7)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 시즌 창단 35년 만에 정규리그와 챔프전을 모두 제패하며 우승컵을 차지했던 흥국생명은 두 시즌 연속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프로 출범(2005년 2월) 후 통합우승 2연패는 흥국생명이 처음이다.

흥국생명의 김연경은 현장 기자단 투표에서 전체 23표 중 15표를 얻어 5표에 그친 황연주를 제치고 최우수선수(MVP)로 뽑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태환 포상금 총 1억1천만원

박태환이 귀국 후 왼발 엄지발가락 밑에 기생하고 있는 티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

박태환은 3일 오후 귀국하면 8월 일본에서 열릴 프레올림픽까지 특별한 일정이 없다. 하지만 전담 코치인 박석기 전 대한수영연맹 경영감독은 이번 대회에서 절감한 지구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1주 정도 짧은 휴식을 갖고 곧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편 박태환은 국제수영연맹(FINA)과 후원사인 수영용품 전문 브랜드 스피도, 대한수영연맹으로부터 최대한 1억1천600만원의 거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번 대회에서 금 1개와 동 1개를 획득한 박태환은 FINA으로부터 1만7천달러(약 1천600만원)를 받는다.

박태환은 또 스피도와 후원계약을 맺으면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획득시 5천만원, 은메달 3천만원, 동메달 2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스피도는 아시아신기록을 세울 경우 1천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해 박태환은 총 9천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최재호기자 lion@

오늘은 안 풀리네

1일 일본 요코하마 경기장에서 열린 요미우리 자이언츠대 요코하마 베이스타스 3차전 경기 4회초 주자 2, 3루에서 이승엽이 연타석 헛스윙 삼진아웃된 뒤 고개를 숙인채 덕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엽 4타수 무안타 3경기 연속안타 실패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3경기 연속 안타에 실패했다.

이승엽은 1일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계속된 일본프로야구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전에서 4번 타자로 선발 출장, 다섯 번 타석에 들어서 볼넷 1개를 얻었을 뿐 4타수 무안타에 삼진은 2개나 당했다.

2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 끝났고 개막 3연전에서 10타수 2안타를 때린 이승엽은 시즌 타율 0.200을 마크했다. 홈런과 타점은 각각 1개씩이다.

이승엽은 9회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뒤 돌아온 수비때 오다지마 마사쿠니로 교체됐다. 주전 유격수 니오카 도모히로가 합류해 처음으로 베스트 타선을 가동한 요미우리는 이승엽과 루이스 곤살레스를 뺀 선발 라인업 7명이 12안타를 몰아쳐 요미우리는 10-1으로 대승했다.

이승엽은 2일 휴식을 취한 뒤 3일 오후 6시 도쿄돔서 열리는 주니치 드래곤스와 홈 개막전 출전, 이병규(33)와 한국 타자 맞대결을 펼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미국 프로야구 오늘 플레이 볼

미국프로야구가 2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9시5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 타디움에서 열리는 지난 해 월드시리즈 우승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 뉴욕 메츠와 공식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여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아메리칸리그 14팀과 내셔널리그 16팀 등 총 30개 팀이 오는 10월1일까지 팀당 162경기씩 페넌트레이스를 벌여 디비전시리즈와 챔피언십시리즈를 거쳐 대망의 월드시리즈에서 챔피언을 가린다.

올해는 홈런왕 배리 본즈(44·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지난 해까지 734개를 펜스 밖으로 넘겨 행크 아론이 보유한 통산 최다홈런 기록(755개) 경신에 22개만을 남겨뒀다. 지난 해 26차례 대포를 쏘아 올렸던 본즈는 시범경기에서 5개의 홈런 등 타율 0.325의 페이스를 보여 새 역사를 쓸 가능성이 높다.

'1억불의 사나이' 마쓰자카 다이스케(27·보스턴 레드삭스)는 미국 무대에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선수들의 출발은 좋지 않다.

제2선발을 확정한 서재응(30)과 선발 경쟁에서 밀린 유제국(24·이상 탬파베이 데블레이스), 불펜행 통보에 트레이드를 요청한 김병현(28·콜로라도 로키스), 선발과 중간을 오가는 '스윙맨' 보직이 예상되는 김선우(30·샌프란시스코) 등 4명이 개막전 로스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제5선발 자리를 꿰차지 못한 '맏형' 박찬호(34·뉴욕 메츠)와 백차승(27·시애틀 매리너스), 타자 '듀오' 추신수(25·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최희섭(28·탬파베이스)은 마이너리그로 추락, 와신상담하며 메이저리그 재입성을 노린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스포츠 중계

2일(월)

▲메이저리그〈뉴욕M-세인트루이스〉(08 : 55·Xports)

▲06/07 NBA〈LA레이커스-새크라멘토〉(10 : 30·SBS스포츠)

▲세계 아이스하키 챔피언십〈한국-멕시코〉(13 : 00·Xports)

▲남북 청소년 축구대표팀 친선경기(13 : 50·MBC)

▲회장기 전국장사 씨름대회(14 : 00·KBSN Sports)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 챔피언 결정전 3차전〈신한은행-삼성생명〉(16 : 50·SBS스포츠)

▲프로농구 6강 PO 2차전〈삼성-오리온스〉(18 : 50·SBS스포츠·Xports)